

世祖의 經書口訣에 대하여

安秉禧*

1.

世祖는 朝鮮朝의 임금 가운데서는 가장 열렬한 崇佛家이었다. 潛邸시절로부터 즉위한 이후까지 佛經을 간행하고 寺刹을 중수하는 등, 佛敎를 위하여 이룩한 업적은 크다. 國語學과 관련되는 것만으로도 釋譜詳節의 편찬, 月印釋譜의 개편, 楞嚴經諺解 등 刊經都監 간행의 佛經諺解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 이 世祖의 佛經諺解는, 世宗의 韻書편찬과 함께 創制 직후의 한글 普及政策의 두 기둥이라고 일컬어지기까지 한다.⁽¹⁾

그런데, 四書三經을 비롯한 儒敎의 經書를 제쳐놓고 佛經부터 언해하여 간행한 사실은, 儒敎의 敎理를 理念으로 하여 건국된 朝鮮朝 초기의 일인 점에서 기이한 느낌을 자아낸다. 封建君主로서의 世祖 개인의 信仰이 강력한 점으로써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君主라 하더라도, 建國理念을 저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儒學의 敎育과 振興을 위하여 世祖도 노력하였으리라 생각된다. 漢文을 이용한 施策은 덮어두더라도, 한글을 사용하여 初學字會를 편찬하게 하는 등 상당한 業績이 있다. 零本으로 전하는, 乙亥字로 된 周易傳義口訣도 그것에 속하는 것이다. 國語學界에서 별로 거론되지 않는 經書口訣도 그것이다.⁽²⁾

世祖晩年の 實錄을 보면 經書口訣에 관한 記錄이 많이 나타난다. 서거하기 보름 전까지도 文臣을 불러 口訣에 관한 討論을 벌이게 하고 있는 것이다. 經書口訣에 대한 世祖의 執念과 熱意는 이와같이 대단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文獻資料에서도 뒷받침된다. 佛經과 같이 口訣뿐 아니라 諺解까지 시도하지 않은 것은 다른 理由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記錄을 정리하여 世祖의 經書口訣을 밝혀보려고 한다. 이로써 國語學과 관련된 世祖의 또다른 모습을 알리며, 한편으로 經書諺解의 맥락을 더듬어보려는 것이다.

이 글의 內容은, 本論主題의 背景을 알기 위하여 世祖 이전의 經書口訣을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어서 世祖實錄에 나타나는 記錄을 중심으로 하여 經書口訣을 설명하고, 다른 文獻資料인 崔恒의 經書小學口訣跋을 중심으로 하여 世祖의 經書口訣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게 될 것이다.

* 서울大學校 人文大學 敎授

(1) 이러한 記述은 國語史나 國語學史의 業績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는 姜信沆(1957).

(2) 世祖의 經書口訣에 대한 극히 간단한 言及은 최현배(1961), 비교적 자세한 記述은 田川孝三(1963)에 나타난다. 그러나, 그에 대한 명확한 認識이 國語學界에는 결여되어 있다.

2.

우리나라의 口訣 곧 冊가 언제부터 존재하느냐는 아직 定說이 없다. 新羅시대가 아닐까 추정되고 있을 뿐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口訣資料는 借字와 한글을 막론하고 15세기 중엽부터의 것이다. 앞으로 보게 될 바와 같이, 世祖때에는 鄭夢周의 詩經口訣을 비롯한 高麗 말기의 資料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오늘날 모두 산일되었다. 記錄상으로도 口訣 내지 冊라고 분명히 한 것은 15세기 資料가 가장 오래다. 1428년(世宗 10)의 世宗實錄이 그것이다. 널리 알려진 것이나, 중요한 資料이므로 本文을 모두 인용하여 당시의 經書口訣을 알아보기로 한다.

上語下季良曰 昔太宗命權近 著五經吐 近讓之不得 遂著詩書易吐 唯禮記四書無之 予慮後學 或失本意 以訓諸生 若因此而教 豈不有益 季良對曰 近尙讓之 況小臣乎 四書 臣於幼時學之 禮記則本不學 且禮記 文多瑣屑 而意亦旁通 不可執一以定 先儒亦言 禮記 漢儒掇拾煨燼之餘 語多未詳 似難考定 上曰然 右議 政孟思誠曰 有吐則臣恐學者 不著力研究 上曰 程朱亦慮學者 未達經書奧旨 故著註解 今其易知 外方教 導 若因此誨人 則其無補乎(10年 閏4月己亥)

먼저 太宗의 命令에 따라서 權近이 만든 三經口訣이 존재하였음이 확인된다. 그 口訣이 한글創制 이전이므로 借字로 된 것임은 말할 것도 없지만, 책으로 간행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현재 零本으로도 전하는 刊本이 없고, 후대의 記錄에도 刊本이 언급된 일이 없으므로 原稿本만 있어서 그 寫本이 유포된 것이 아닌가 한다. 다음으로, 世宗이 禮記와 四書에 口訣을 달도록 하나 下季良이 사양하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사양하는 力點이 禮記에 두어진 점으로 본다면 四書의 口訣은 받아들여진 것이 아닌가 한다. 끝으로, 당시의 文臣 내지 學者 가운데는 口訣의 불필요성을 믿는 사람이 있었음이 나타난다. 孟思誠이 바로 그 사람인데, 口訣이 있으면 學者가 공부를 게을리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理由는 다르지만, 口訣을 확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후대의 口訣에 대한 논의에서 가끔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世宗은, 程朱가 註解를 지어서 經書의 깊은 뜻을 쉽게 알린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口訣으로써 가르친다면 儒學의 教育에 유익하다고 反論을 펴고 있다. 論議의 시비는 어떻든, 世宗의 이 주장에서 위의 四書口訣은 그대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이 記錄의 검토에서 太宗과 世宗이 經書口訣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文臣에게 그 口訣을 확정하게 하였음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맥락으로 한글創制 직후에 世宗은 集賢殿에 四書의 諺解를 명령하였던 것이다.

驛召尙州使金鈞 鈞爲尙州未半年 時集賢殿奉教 以諺文譯四書 直提學金汝主之 汝死 集賢殿薦鈞 故特 召之(30年 3月癸丑)

이 記錄은 世宗의 명령으로 集賢殿에서 金汝을 주재자로 하여 한글로 四書를 언해하고

있었는데⁽³⁾, 1448년(世宗 30) 3월 金汶이 사망하게 되자 후임자로 천거된 尙州牧使 金駒를 특별히 불러들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글에 의한 四書諺解가 1448년 3월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사실과, 부임한 지 半年도 안 된 地方官을 任期를 무시하고 부를 정도로 그 사업이 강력하게 추진된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런데, 이 記錄만으로는 알 수 없는 점이 많다. 사업이 시작된 정확한 年代와 關係한 學者가 밝혀져 있지 않다. 한글創制가 1446년 9월이니 그로부터 1448년 3월까지에 시작되고, 集賢殿에서의 일이니 集賢殿學士가 관여하였으리라는 추정만 가능한 것이다. 사실 위의 實錄記事는 主題가 四書諺解가 아니다. 특별한 地方官의 人事문제다. 實錄記事가 한글創制에 대하여 매우 인색한 것은 이미 알려진 것이지만, 이 四書諺解사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다. 實錄에서는 달리 記事가 없다. 다른 文獻의 記錄으로써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보게 된 記錄은 徐居正의 崔恒碑銘(四桂文集補遺 Ⅱ)이다.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

英陵命臣金汶金駒及公等 定小學四書五經口訣 居正亦與其後 每見諸君講論同異 公議論發越諸君 咸推讓之

이로써 이 사업에는 崔恒 徐居正등이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實錄과는 어긋나는 사실이 나타난다. 사업의 내용이 諺解가 아니라 口訣을 확정하는 일이고, 대상의 經書가 四書を 비롯하여 小學과 三經까지 포괄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 차이에서 어느것이 옳은지는 쉽게 판정할 수 없다. 보통 實錄과 기타 記錄이 다르면 적어도 朝鮮初에는 實錄의 신빙성이 크지만, 이 경우에는 實錄記事가 다른 主題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崔恒碑銘이 옳지 않은가 한다. 그런데, 楞嚴經諺解를 비롯한 刊經都監의 諺解書를 보면 諺解에 앞서 原文에 口訣이 달려진다. 따라서, 사업이 實錄記事와 같이 諺解라 하더라도 口訣을 달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世宗의 명령에 의하여 經書에 口訣을 한글로 다는 사업이 추진되었음은 확인된다.

그러나, 이 口訣도 世宗朝에는 확정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완성되었다는 記錄이 전혀 없고, 그때의 口訣書가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宣祖朝의 經書諺解사업에서 참고한 口訣書에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⁴⁾ 더우기 世祖가 小學과 四書五經의 口訣을 확정하도록 하였는데, 世宗의 사업이 결실을 보았다면 10여년 뒤에 똑같은 사업을

(3) 金汶은 崔萬理등과 함께 한글創制에 反對上疏를 올린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이 創制 직후에 한글로 四書諺解를 행하는 데 주재자가 된 일은 흥미있다.

(4) 1574년(宣祖 7) 柳希春이 王命으로 착수한 經書諺解사업에 참고한 책은 眉巖日記草에 의하면 世祖가 口訣을 단 周易大文, 李滉이 고증한 四書五經口訣諺釋, 朴世茂의 書傳吐釋 등이다. 柳希春의 사업을 이어받아 經書諺解를 완결한 校正廳의 參考書籍에 관하여는 記錄이 없다. 그러나, 柳希春이 참고한 책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柳希春은 관계되는 책을, 弘文館을 비롯하여 地方의 個人에 이르기까지 남김없이 구하였음이 그의 日記에 보이기 때문이다.

되풀이한 셈인 것이다. 世祖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先代學者들의 口訣書를 참고한 記錄(이에 대하여는 뒤에 기술될 것이다.)이 있으나 世宗때의 책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상에서 太宗때 權近의 三經口訣이 존재하고, 世宗때 小學과 四書五經의 口訣確定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완성되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다. 世宗에 의한 이 사업은 世祖가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여 일부 經書에서는 완결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記錄이 그것을 말하고 있고, 實冊이 존재하는 것이다. 世祖의 經書口訣을 구체적으로 살피기로 한다.

3.

世祖가 楞嚴經, 法華經, 阿彌陀經諺解 등의 刊經都監 간행 佛經諺解書에 몸소 口訣을 달거나 언해를 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佛書 이외의 書籍에 대한 諺解와 口訣에 기울인 世祖의 努力도 큰 것이었다. 實錄에서만 보아도 1458년(世祖 4) 10월 金駒, 崔恒, 韓繼禧등에게 初學字會에 한글로 註釋을 달게 하고, 1461년 2월 崔恒등에게 蠶書를 언해하게 하고, 같은 해 8월 李承召, 梁誠之 등에게 明皇誠鑑을 언해하게 하고, 1463년 12월 申叔舟등에게 兵書口訣을 정하게 하고, 1464년 9월 스스로 兵書 곧 武經에 口訣을 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가장 힘을 들인 것은 周易을 비롯한 經書의 口訣이다. 實錄, 특히 晩年の 實錄에는 거의 매일같이 그러한 記事가 나타난다. 世宗實錄과는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口訣記事는 世祖 스스로 그 일을 주재하였기 때문이라 하겠다. 年代에 따라 그것을 정리하여 世祖의 經書口訣을 보기로 한다.

經書口訣에 관한 記事는 1465년(世祖 11) 9월에 처음 나타난다. 丕顯閣에서 文臣을 불러 周易口訣을 논의하였다는 것이다.

夕御丕顯閣 召成均司藝鄭自英 直講俞希益 吏曹判書韓繼禧 戶曹判書盧思愼 吏曹參判姜希孟 論周易口訣 夜分乃罷(11年 9月庚午)

이때 논의한 周易口訣은 이미 世祖가 몸소 확정한 周易口訣이라 생각된다. 그해 10월 이후에 잇따라 나타나는 記事와 연관하여 볼 때, 이때 비로소 周易口訣에 관심을 가졌다고 할 수는 없다. 10월 記事의 중요한 것을 보면, 世祖가 程子の 註釋에 따라 周易口訣을 달았고, 그것을 文臣들에게 토론을 하도록 하는데 특히 權近의 周易口訣과의 差異點에 대하여 論難을 벌이게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이 그것이다.

召成均館司藝鄭自英 直講丘從直俞希益 注薄俞鎭 命皆就前論易 傳曰… 予觀易傳 程傳甚通 朱傳或蔽朱不及程大遠 予故以程傳定口訣 使人將御定口訣 互相論辨(11年 10月庚辰)

以兼藝文鄭蘭宗柳洵金季昌鄭孝常金紐朴始亨李瓊全裴孟厚 崔自濱趙祉李益培成晉俞鎭 李則孫召崔漢良成倪爲左 柳允謙魚世謙魚世恭權季禧柳文通李孟賢洪貴達李淑城李封鄭徵李承寧閔粹崔淑精孫比長李陸許讓朴孝元爲右 御定周易口訣與先儒陽村權近口訣 異處粘標 分授左右 每於殿講日 論難是非(11年 10月癸

亥)

御丕顯閣…命召彙藝文鄭蘭宗等 仍傳于諸宗宰曰 此皆俊士 予令講易口訣 勝者加資 負者削資 宗宰等 共觀其間難 仍命分左右而坐 問難周易 講儒生任士洪等五人經書(11年 10月己丑)

그리하여, 이듬해인 1466년 3월에는 그 책이 출판되기에 이른다. 世祖가 친히 成均館에 가서 頒賜를 하고 있다.

幸成均館 王世子與孝寧大君補… 工曹參判丘從直 及承旨等隨駕 上謁文宣王如儀 頒規定口訣(12年 3月 丙午)

世祖親定の 周易口訣의 刊行과 頒賜는 그 이튿날 世子和 成均館大司成 등이 각기 따로 올린 箋에 비추어서 다시 확인된다. 여기 世子の 箋에 관한 記事만 인용하기로 한다.

世子率百官上箋 賀親幸大學 其箋曰…恭惟我主上殿下…慮大易句讀之難折 正俗儒牴牾之相承 定訣 獨斷於宸衷 傳心 實契於往聖 奚前席於博洽 俾開卷而分明 宜廣布於諸儒 遂先頒於大學(12年 3月丁未)

世祖의 周易口訣과 成均館에의 첫 頒賜에 대한 칭송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成均館에서 있었던 行事に 世子를 데리고 간 것은 그 전해 11월 世子에게 한 約束의 이행이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周易口訣의 頒賜가 확인된다.

御思政殿 受常參視事…俄而世子 入侍進酒 上曰…我將定易口訣後 率汝幸芹宮 釋奠素王 着汝以儒服 與儒生齒坐 橫經問難 大宴諸生(11年 11月庚戌)

成均館에 맨먼저 반사된 책, 곧 이때 간행된 책은 乙亥字로 된 康寧殿口訣의 周易傳義라 생각된다. 그 책의 內容과 形態 編著者名에 의하는 것이다. 周易傳義의 註釋으로는 朱子本義보다 程傳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世祖의 程傳에 대한 높은 評價(위에 인용한 11年 10月庚辰條의 世祖實錄記事)에 비추어서 그가 口訣을 단 책이라 하겠다. 책에 사용된 活字가 初鑄乙亥字인 점에서 15세기 중엽의 刊本人 사실도 그것을 뒷받침한다. 編著者名의 康寧殿은 丕顯閣과 함께 世祖가 文臣을 불러 周易口訣을 논의하고 확정하던 곳이다. 世祖가 口訣을 달고 언해한 牧牛子修心訣의 編著者名이 丕顯閣譯訣이라 한 것과 같이 이 책의 編著者名도 世祖가 口訣가 달았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口訣을 갖는 이 책은, 漢文本과 구별하기 위하여 周易傳義口訣이라 부르기로 하거니와, 현재 零本으로만 전하고 있다.⁽⁵⁾ 늦어도 16세기 초엽에는 이루어진 그 覆刻本은 完帙이 남아 있다. 그것으로써 世祖의 周易口訣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宣祖때 校正廳의 周易諺解에 보이는 口訣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의 對照는 國語史보다 儒學史의 研究에 이용되리라고 믿는다.

그런데, 世祖는 이때 간행된 口訣에 만족하지 않고 補完과 修正을 하여 나아갔던 것이다.

(5) 이에 대한 記述은 사진 1 및 安秉禧(1979)를 참조할 것, 刊年에 대하여는 後註(10)을 참조.

그 晩年에 몸이 불편하여 鄉第로 나가 있으면서도 文臣을 불러 周易口訣의 參定을 명령하고 있다.

上不豫…又召鄭自英丘從直金壽寧李永垠朴樾 詣詳定所 參定周易口訣(14年 7月丙戌)

鄭自英등을 詳定所로 보냈는데, 원래 詳定所는 經國大典의 편찬을 위한 곳이나 周易口訣에 대하여도 作業을 하게 한 곳임을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口訣을 처음 달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御前에서 文臣을 左右로 나누어서 論難을 벌이기도 하고, 御定口訣과 權近의 口訣을 비교하여 논의하게도 하였다. 다음 記事가 그것인데, 이때도 病席에 있었으므로 周易口訣에 대한 世祖의 執念을 엿볼 수 있다.

上召鄭麟趾鄭昌孫申叔舟…鄭自英崔灝元安孝禮等 分左右 論御定周易口訣 孝禮灝元與自英 更相論難 孝禮等從御定口訣 自英從陽村口訣 劇變移時…上曰誤在自英 仍賜酒(14年 8月壬辰)

이와 같은 論難에서 世祖는 스스로의 口訣을 옳다고 생각하였으나, 權近의 口訣을 따르는 사람도 없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世祖가 스스로의 口訣을 강제로 따르게 하지는 않았다. 한 文臣이 御定口訣의 強行을 奏請하였을 때 응하지 않았던 것이다.

上不豫…上召諸宰及李永垠金壽寧丘從直安孝禮崔灝元等 設酌 論御定周易口訣 至渙卦 自英請以權近口訣 從直作而請曰 御定口訣 擴前聖所未發 盡善盡美 然有退而非議者 若斬此輩 口訣自行矣…今誹謗御定口訣者 自英是也 請上斬自英 上良之不應 命出去(14年 8月丁酉)

世祖는 이와같이 理論上으로 완전한 口訣을 추구하여 마지 않았다. 權力으로 口訣이 정하여지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완전 무결의 口訣을 위한 作業은 결국 끝맺지 못하게 된다. 世祖는 위의 記事의 일이 있는 지 불과 1달 뒤인 9월 8일甲子에 서거하였기 때문이다.

周易口訣과 함께, 世祖는 다른 經書와 小學에도 일정한 口訣을 달려고 하였다. 그러한 作業을 위하여 先代學者들의 經書口訣을 수집하도록 禮曹에 명령한 다음 記事가 그것을 말한다.

命禮曹 廣求本國先儒所定四書五經口訣 與鄭夢周詩口訣(11年 11月己巳)

여기 鄭夢周의 詩經口訣이 특별히 거론된 점에서, 앞에서 본 權近의 周易口訣등과 같이 여러 學者의 經書口訣이 자기 특색을 갖고 전래되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적어도 經學의 教育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나의 완전한 口訣의 확정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世祖의 經書口訣은 출발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經書口訣에 대한 命命은 이보다 앞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의 일이 있는 지 약 2개월 후에 世祖는 經書에 처음 口訣을 단 사람과 校正郎官을 대질시켜 논란을 벌이게 하였기 때문이다. 다음 記事가 그것이다.

又召諸書口訣校正郎官 講論 初定口訣者與校正者 交相問難 負者罰之以酒 先是 分命幸樞 出四書五經 及左傳口訣 又使諸儒臣校正(12年 2月辛巳)

이때 經書口訣은 校正단계까지 이르고 있었으나, 周易口訣의 경우와 같이 補完作業은 계속되었다. 詩書經口訣에 관한 記事가 잇따라 나타나는 것이다. 다음이 그 한두 예다.

御便殿 命河東君鄭麟趾 前禮曹判書姜希孟 成均館大司成金禮蒙...校正詩口訣 蓬原君鄭昌孫 行上護軍宋處寬 行護軍丘從直...校正書口訣(13年 12月癸巳)

上不豫...令河東君鄭麟趾等 定詩口訣 數章罷(14年 8月癸卯)

諸宗宰問安 引見于寶慶堂後庭 召丘從直等 讐校詩口訣 仍設酌(14年 8月丙午 및 戊申)

마지막 記事(8月戊申條)는 서거하기 보름전의 것이다. 世祖는 生涯의 마지막까지 經書口訣을 추진하였다고 할 것이다. 마무리를 짓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補完作業은 계속되었지만 단락을 지어 간행된 口訣書가 있음은 그런대로 다행한 것이다. 위에서 말한 周易傳義口訣 이외에 論語大文口訣과 小學集說口訣, 禮記集說大全口訣이 그것이거나 그 계통으로 추정되는 책이다. (6) 小學과 禮記의 口訣書는 漢文本의 欄上에 한글로 本文에 口訣을 단 것이나, 論語大文口訣은 本文에 口訣을 달아서 간행된 것이다. 책의 形態를 보면 禮記集說大全口訣은 15세기 후반의 刊本이고 다른 2책은 16세기 중엽이거나 그 이후의 刊本이다. 그러나, 口訣이 宣祖 이후의 것과 다르기 때문에 世祖의 經書口訣과 관련시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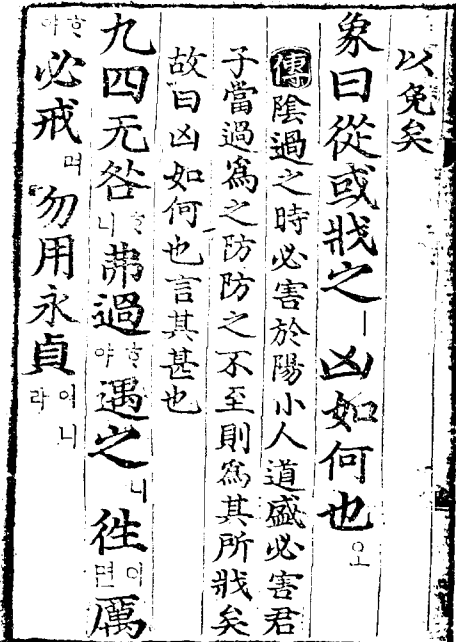


사진 1. 周易傳義口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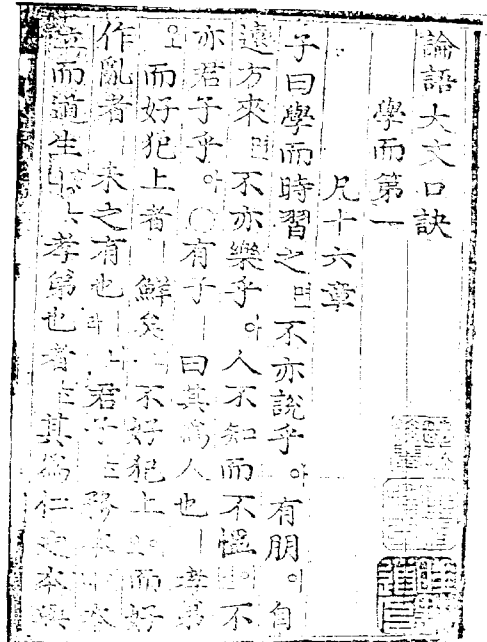


사진 2. 論語大文口訣

(6) 이들에 대한 것은 사진 2~4 및 安秉禧(1979)를 참조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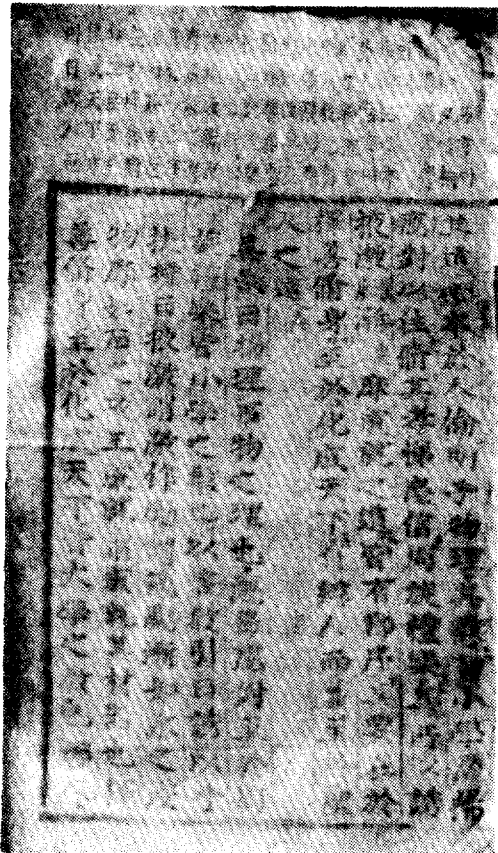


사진 3. 小學集說大全口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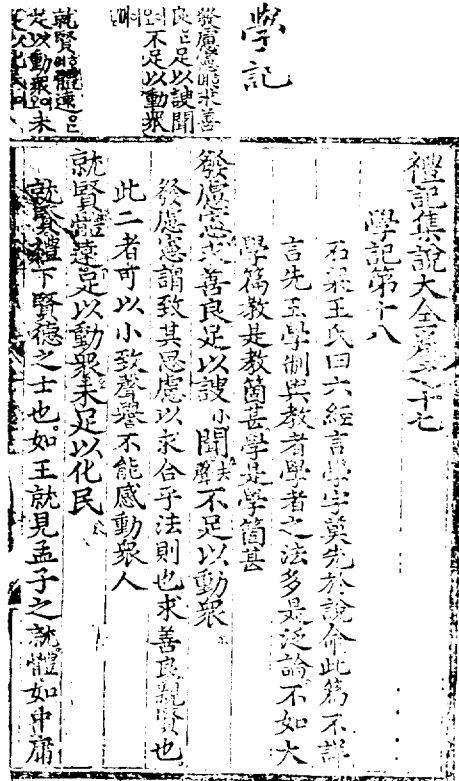


사진 4. 禮記集說大全口訣

것이다. 다음 記事도 이와 연관이 있다. 論語에 대한 것은 없으나, 周易 禮記 小學의 口訣은 확정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다.

命恒等 先定小學周易口訣 次定禮記 若詩書口訣則陽村己定 姑停之(14年 8月乙未)

여기 詩經과 書經의 口訣을 그만두게 하였다는 것은 앞에 인용한 記事(8月 癸卯, 丙午, 戊申條)와 어긋난다. 그만두게 한 詩經口訣을 8일 이후에 계속 손질을 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굳이 위의 記事가 사실이라면 일시적으로 그만두게 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실은, 詩經의 경우 대부분의 文臣이 엄격한 口訣의 확정을 반대한 점이다. 오직 한 文臣만이 世祖의 뜻에 찬동을 표하다가, 大司憲으로부터 그 上奏가 모두 阿諛에서 나왔다고 호된 批判을 받았다. 다음이 그것이다.

上覽新定詩口訣 至關關雉鳴口訣 上曰有所未可 諸臣皆曰 詩本吟咏 似亦無妨 工曹參判口(當作丘一筆者)從直曰 誠如上旨…大司憲梁誠之進曰 從直不以所見 每事承迎 初於詩 阿上意…其言皆出於阿諛(12年 4月乙卯)

이 詩經口訣에 대한 記事로 보아서 당시 文臣들의 지배적인 분위기는 世祖의 口訣에 대한 지나친 執念을 못마땅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된다. 世宗때 孟思誠이 經書口訣의 확정을 반대한 것이나, 1574년(宣祖7) 10월 10일 柳希春이 經筵에서 宣祖로부터 四書五經의 口訣과 諺解의 詳定에 대한 명령을 받았을 때 右議政盧守愼이 노골적인 不滿을 표시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⁷⁾ 反對의 理由와 사람이 다를 뿐이다. 그런 反對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世祖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口訣作業을 즐기치게 밀고 나간 사실도 다른 王과 같았던 것이다.

이상으로 實錄記事를 중심으로 한 世祖의 經書口訣에 대한 고찰을 마치기로 한다. 그런데, 口訣과 관련된 記事에 나타나는 人物은 鄭麟趾, 申叔舟, 崔恒, 鄭昌孫 등 70여명에 이른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人物은 丘從直(12회), 鄭自英(11회), 金禮蒙(6회), 金壽寧, 俞希益, 俞鎮, 李永垠, 安孝禮(이상 4회) 등이며, 이들은 周易, 詩經, 書經 등의 口訣에 두루 관계하였다. 이에 世祖는 晩年에 宰相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文臣을 동원하여 經書와 小學에 완벽한 口訣을 달려고 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이 口訣作業의 意圖와 分擔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새로운 記錄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

4.

世祖의 經書口訣에 대한 새로운 記錄으로는 崔恒의 經書小學口訣跋이 있다.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崔恒은 世宗때로부터 經書의 口訣作業에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한글創制와 東國正韻, 洪武正韻譯訓, 龍飛御天歌의 편찬에 관여하여 한글과 인연이 깊은 學者다. 그러므로, 口訣跋을 썼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跋文은 口訣書에 있지 않고, 文集인 太虛亭集(권 2)에 실려 있어 年記가 없음이 유감이다. 그러나, 內容이 經書口訣의 必要性, 口訣作業의 內譯과 進行, 이 事業에 대한 稱頌으로 되어 있어서, 世祖의 意圖와 作業分擔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 經書口訣의 실상을 알리는 결정적인 記錄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먼저, 內容의 첫 부분을 보기로 한다. 口訣作業의 意圖가 나타나는 것이다.

大抵欲觀書者 須先曉正經 正經既曉 則諸家之解已蹄 欲讀書者 須先正語訣 語訣既正 則他岐之感自祛 然則正經之有口訣 誠儒者指月之指也

글을 보고 뜻을 이해함에는 먼저 正經 곧 經書의 本文에 익숙함이 있어야 하고, 글을 읽

(7) 盧守愼이 반대한 일은 그해 10월 13일의 眉巖日記에 나타난다. 理由는, 經書는 각자 읽는 바에 맡겨야 하고 口訣과 諺解를 하나로 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反對에는 盧守愼의 柳希春에 대한 나쁜 감정도 작용한 듯하다. 그러한 감정에 대한 것은 眉巖日記(1575년 1월 17일, 1576년 10월 10일 등)에 가끔 기록되어 있다.

고 앞에는 먼저 語訣을 바르게 하여야 하는 법인데, 正經에 口訣이 있다면 선비의 공부에 指針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 語訣은 글에 쓰여진 말과 口訣이 아닌가 한다. 漢字에 쓰여진 漢字의 말 뜻과 句讀에 나타나는 口訣만 바로잡으면, 그 글은 읽혀질 수 있다. 經書에는 本文과 여러 學者의 註解가 있으나, 本文을 정확히 숙달하면 註解는 저절로 풀려진다. 따라서 經書의 本文에 口訣을 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내용이다. 이에 世祖의 口訣作業의 意圖가 선비들에게 經書理解의 정확한 길잡이의 제공에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것은 徐居正의 崔恒碑銘에도 나타난다.

光陵嘗嘆東方學者 語音不正 句讀不明 雖有權近鄭夢周口訣 紕繆尙多 腐儒俗士 傳訛承誤 遂命臣鄭麟趾申叔舟丘從直金禮蒙韓繼禧及公與臣居正等 分授五經四書 考古證今 定口訣以進

世祖가 우리나라 선비가 語音이 바르지 못하고 句讀가 명확하지 않음을 안타가와 하여 口訣作業을 명령하였다는 것이다.⁽⁸⁾ 語音과 句讀는 跋文의 語訣과 상통하는 것으로 생각되거니와, 語音矯正은 東國正韻등에 의하여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先儒의 것이 있으나 잘못이 많은 데다가 傳承過程에서 잘못이 늘어나는 口訣을 바로잡고자 하여 이 作業에 착수한 것이다. 한편, 우리는 위 跋文에서 口訣作業이 經書의 本文에 국한된 사실을 알게 된다. 이는 다음에 계속되는 그 跋文에서도 나타나지만, 당시의 口訣書라고 추정되는 책에서 口訣은 本文에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事業의 分擔이 기술된 부분을 인용하기로 한다.

易之爲書 最精妙微隱 非天下之至神 孰得而開示 恭惟我殿下 萬機餘閒 暫定口訣 四聖之旨 炳如指掌 又以小學 尤切於學者入道之門 亦自定訣 詩則命河東君臣鄭麟趾 書則蓬原君臣鄭昌孫 禮則高靈君臣申叔舟 論語則漢城府尹臣李石亨 孟子則吏曹判書臣成任 大學則中樞府同知事臣洪應 中庸則刑曹判書臣姜希孟 既訖 又命中樞府知事臣丘從直 同知事臣金禮蒙 工曹參判臣鄭自英 吏曹參議臣李永垠 戶曹參議臣金壽寧 前右承旨臣朴健等 論難校正 每遇宵禁 悉稟睿斷 迺命典校署 印而頒之 唯易則正經之下 并附程朱之傳印之.

여기에서 각 經書口訣의 責任者와 校正關係가 밝혀진 것이다. 責任者를 圖表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周易	世	祖	論語	李	石	亨
詩經	鄭	麟趾	孟子	成		任
書經	鄭	昌孫	大學	洪		應
禮記	申	叔舟	中庸	姜	希	孟
小學	世	祖				

(8) 이 碑銘에서는 口訣을 달도록 한 年記가 없다. 그런데, 여느 碑銘과 마찬가지로 崔恒碑銘에서도 徐居正은 崔恒의 經歷과 業績을 年代順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口訣에 대한 記事는 1464년의 經歷記事에 계속되고 1466년의 記事에 앞서 있다. 이로 보면, 口訣에 관한 命命은, 적어도 徐居正의 생각으로는 1464년이나 그 이듬해의 일로 잡은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에는 世祖와 宰樞가 망라되어 있다. 이리하여 일단 口訣이 정하여진 뒤에는 丘從直, 鄭自英 등 經學으로 유명한 文臣에게 校正을 명령하였다.⁽⁹⁾ 校正過程에서 요긴한 문제가 생기면 世祖의 意見에 따랐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跋文에 의하면, 崔恒은 스스로 국의자로 되어 있다. 그러나, 世宗때부터 口訣확정에 참여한 경력(특히 앞의 世祖實錄 14年 8月乙未條 참조)으로 보든지, 跋文을 쓴 比重으로 보든지, 그것은 崔恒의 謙辭로 생각된다. 사실은 世祖를 도와 이 일에 깊이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한다. 崔恒碑銘에는 앞에 인용된 글에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써있다.

光陵又召會諸臣講論同異 親加審裁 公在左右 每承顧問 毫分纒所 應對如響 皆愜衆意 光陵目左右曰 眞天才也

이와 비슷한 내용은 崔恒의 墓誌文인 姜希孟의 太虛亭墓誌文에도 나타난다. 崔恒은 丘從直등이 행한 口訣의 校正作業에서 크게 활약하였다는 뜻이다. 그런데, 1486년(成宗 17年丙午)에 된 徐居正의 太虛亭集序에서 經書口訣을 그의 편찬이라 하고 있다. 이를 보면 그는 어느 일부를 분담한 것이 아니라 총괄한 셈이다. 碑銘이나 文集序가 보통 과장된 行蹟을 담기는 하나, 당시 다른 사람의 碑銘등에는 이 經書口訣에 대한 言及이 없는 점에서 崔恒의 역할은 컸다고 할 것이다. 그 序는 다음과 같다.

及佐我世祖 再參勲盟 位尊台鼎正 當作文運之日 自任斯文制作之責 五經四書口訣 經國大典等編 皆所纂也

요컨대 經書口訣은 世祖를 중심으로 한 崔恒등 文臣의 參與로 확정된 것이다. 그것은 典校署에 내러서 印刷에 붙여졌다. 典校署는 實錄(世祖 12年 1月戊午條)에 의하면 1466년 1월에 校書館을 개칭한 것이다. 經書口訣이 印刷에 붙여진 것이 그 이후의 일이 된다. 그러나 정확한 年代는 밝혀져 있지 않다. 跋文에도 年記가 없으므로, 官職등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姜希孟, 鄭自英, 李永垠, 金壽寧 등이 모두 위의 跋文에 보이는 官職에 있는 것은 1468年 8月 13日(庚子) 이후의 일이다. 한편 金禮蒙이 위의 官職에서 工曹判書로 된 것은 그해 8월 23日(庚戌)의 일이다.

以…姜希孟刑曹判書 徐居正工曹判書 鄭自英工曹參判(13年 12月甲辰)

以…李永垠吏曹參議 金壽寧戶曹參議(14年 8月庚子)

以…金禮蒙工曹判書(14年 8月庚戌)

따라서 跋文은 1468년 8월 중순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世祖가 서거하기 보다 20일 정도 앞서는 셈이다. 口訣에 관한 實錄記事가 이 무렵까지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서, 典校

(9) 이에 관한 記錄은 世祖實錄의 周易口訣에 대한 한 記事의 끝에 있는 史臣에 의한 다음 句節이 그것이다.

從直自英 俱以經學顯 從直心阿而學博 自英心直而學固(14年 8月壬辰)

뿔에 보내진 것도 跋文의 年代와 같은 것으로 보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이렇게 본다면, 經書口訣은 世祖의 마지막 文化事業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 인용된 分擔관계 跋文의 마지막 句節은 이때 간행된 世祖의 口訣書에 대한 중요한 情報을 제공하고 있다. 오직 周易만 程子와 朱子의 傳義를 붙여서 인쇄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를 뒤집어보면, 다른 口訣書는 本文만 口訣을 달아서 간행한다는 뜻이다.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經書의 本文에 口訣이 필요하다는 跋文 부분과도 부합되고, 校正廳에서 번역한 小學과 四書三經의 諺解가 本文에 국한되어 註解까지 번역된 佛經諺解에 대조적인 사실에서 뒷받침된다. 따라서 世祖가 확정하여 간행한 口訣書는 論語大文口訣과 같이 經書의 本文단이고, 周易단 周易傳義口訣과 같은 체제일 것이다. 저 위에서 현재 전하는 世祖의 口訣書로 周易傳義口訣, 論語大文口訣, 小學集說口訣, 禮記集說大全口訣을 추정할 일이 있다. 跋文이 말하는 책의 體裁에 일치하는 것은 앞의 2책뿐이다. 뒤의 2책은 經書小學口訣跋이 붙을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世祖의 口訣書 그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책이다.

周易의 口訣書로서 15세기 후반의 刊本으로 믿어지는 것에 周易傳義大全口訣이 있다.⁽¹⁰⁾ 零本으로 전하는데, 漢文本의 欄上에 한글로 口訣을 단 本文을 실어놓은 책이다. 小學集說口訣과 禮記集說大全口訣과 똑같은 체제인 것이다. 그런데, 그 欄上부분은 周易傳義口訣의 本文과 완전히 일치한다. 그 책에서 口訣이 달린 本文부분을 欄上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周易傳義大全口訣은 비록 世祖가 간행을 명령한 그 책이 아니지만 口訣은 世祖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小學集說口訣과 禮記集說大全口訣의 欄上부분은 論語大文口訣과 같은 체제의 世祖때 口訣書에서 옮겨왔을 가능성이 있다. 15세기 후반의 刊本인 禮記集說大全口訣의 경우에는 그 가능성에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다시 말하면, 小學集說口訣과 禮記集說大全口訣의 欄上부분을 옮겨놓으면 世祖때의 해당 口訣書가 재구될 수 있다. 이들 2책을 世祖의 口訣書로 추정할 소이인 것이다.

그러나, 經書小學口訣跋에서 말한 책의 체제와 현재 전하는 口訣書의 형태에 비추어서 世祖때 간행된 것은 周易傳義口訣뿐이며,⁽¹¹⁾ 世祖때의 口訣을 보여주는 것은 周易傳義大全口訣과 禮記集說大全口訣이라 하겠다. 論語大文口訣은 책의 체제와 口訣의 내용에서, 小學集說口訣은 口訣의 내용에서 世祖때의 口訣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崔恒의

(10) 이 책에 대한 것은 安秉禧(1969)를 참조할 것.

(11) 周易傳義口訣의 刊年은 成均館에의 頒賜記錄으로 1466년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책의 체제가 이 經書小學口訣跋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현재의 周易傳義口訣이 1466년 刊本이라면, 口訣에서 차이를 보이나 체제가 똑같은 跋文 年代의 刊本이 있는 셈이다. 楞嚴經諺解가 1년 사이에 2번 간행된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周易傳義大全口訣의 口訣내용이 周易傳義口訣과 일치하므로, 현재의 周易傳義口訣이 世祖가 마지막으로 확정된 口訣이라 할 수 있다. 跋文 年代인 1468년의 刊本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또다른 實冊이 나타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判定은 후일의 研究에 맡기로 한다.

經書小學口訣跋의 價値가 여기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5.

지금까지 우리는 記錄을 중심으로 하여 世祖의 經書口訣을 살펴보아 왔다. 서거하기 보름전까지 病席에서 文臣을 불러 口訣에 대한 論難을 펴게 하는 등, 그에 대한 世祖의 대단한 熱誠을 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周易傳義口訣등 經書의 口訣書를 남겨놓은 것이다. 儒敎의 理念을 바탕으로 하여 건국된 朝鮮初期의 일로서, 儒學의 振興을 위하여 그만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經書口訣이 經書의 本文에만 그치고 諺解까지 나아가지 못하였고, 註解에는 口訣조차 달지 않았던 것이다. 本文은 물론 註解까지 口訣과 諺解가 이루어진 佛經諺解에 비교하면 너무나 뒤진 상태다. 실지로 四書三經의 온전한 諺解書의 刊行은 이보다 1세기나 늦은 宣祖때의 일이다. 刊經都監의 설치등 世祖의 佛敎에 대한 독실한 信仰心이 그 理由의 하나일 수도 있다. 그러나, 經書口訣에 대한 熱意도 佛經諺解에 결코 못지않은 것에서 그 理由는 난관에 부딪친다. 儒臣의 맹렬한 反對로 刊經都監이 폐지된 뒤에도 거의 100년이 지나서야 校正廳이 설치되어 經書諺解가 완결된 사실도 그것만으로는 꼭같이 설명되지 않는다. 뒤진 데에는 다른 理由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아는 바와 같이 新羅와 高麗에 있어서는 佛敎가 學問과 思想의 主流이었다. 儒敎는 하나의 支流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이 麗末에 이르러 바뀌어지기 시작하여 朝鮮初期에서는 儒敎가 우위에 자리하였으나, 실지로는 그 세력이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한다. 더우기 佛敎에 대한 理解는 더욱 컸으리라 생각된다. 刊經都監의 佛經諺解에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한 人物에 高僧인 信眉, 孝寧大君 등과 함께 文臣인 金守溫, 韓繼禧 등이 있는 점이 그 단적인 증거다. 佛經諺解에서 그런 역할을 하려면 佛經에 깊은 素養이 있어야 한다. 文臣에 그러한 人物이 있었다면, 佛經에 대한 理解와 素養이 광범하고 높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나, 經書에 대한 理解는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世宗이 經書口訣을 명령하였을 때, 下季良이 四書는 어렸을 때 배웠으나 禮記는 본래 배우지도 못하였다고 사양한 사실이 이를 말하는 것이다. 謙辭이기는 하지만 王에게 거짓말은 못하는 법인데, 當代의 碩學으로서 王命을 받은 人物이 禮記는 배우지도 못했다는 것은 經書에 대한 素養이 깊지 않음을 말한다. 世祖때에 있어서도 사정은 크게 나이지 않았을 것이므로, 經書本文의 口訣을 확정하는 일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世祖의 熱意와 執念이 아니었으면 그것조차 어려웠을 것이 아닌가 한다. 世祖의 經書口訣이 발판이 되고, 그 이후 추진된 儒學의 振興으로 儒學者가 배출되어 經書諺解는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 儒學의 敎育과 研究뿐 아니라, 國語史研究에 끼친 世祖의 功績은 큰 바 있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 姜信沆(1957), “李朝初 佛經諺解 經緯에 對하여”, 國語研究 1.
安秉禧(1979), “中世語의 한글資料에 대한 綜合的인 考察”, 奎章閣 3.
최현배(1961), 고친 한글갈, 서울:정음사.
田川孝三(1963), “庚辰字本孝經諺解와 小學諺解”, 朝鮮學報 27.